

# 전남개발공사, 2026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서 ‘장관상’

### 전남OK도민광장 조성 등 친환경 열린공간 확대 성과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ESG 사회공헌 모델 구축

전남개발공사가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2026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환경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남도청 앞 유류부지를 친환경 소용돌이길 ‘전남OK도민광장’으로 조성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OK도민광장은 사계절 정원과 잔디광장, 휴식·문화 공간을 갖춘 친환경 광장으로 조성돼 도민 생활 속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

에 환원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순이익의 10%를 도민 수혜사업에 기부하는 등 공공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호남 ‘아름다운 동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간 상생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환경 분야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전자폐기물 감축을 위한 ‘E-Waste Zero’ 자원순환 캠페인을 비롯해 친환경 태양광 LED 조명등 설치, 환경경호 활동, 플로깅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전남개발공사가 ‘2026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환경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도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은 도민과 ESG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과 환경이 함께 추진해 온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전남도의사회,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도내 3개 의료원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남도, 퇴원환자 ‘지역돌봄’ 연결체계 구축 건보공단·대학병원·의사회 등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협약

전남도가 병원에서 퇴원한 도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전남도의사회,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도내 3개 의료원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병원에서 퇴원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퇴원환자 등 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의뢰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정보 공유와 자원 연계,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병입급 의료기관이 퇴원 이전 단계부터 통합돌봄 연계를 시작함으로써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 생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통합돌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를 포함한 총 183억원을 투입해 도내 22개 시군에 전담 인력 464명을 확보해 지역 돌봄 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인 만큼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광역과 기초,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유동중 장흥 용두마을 어르신, 마을 발전기금 100만원 ‘통큰 기부’

### 마을 공동체 활성화·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

유동중 장흥 용두마을 어르신(90)이 마을 발전기금 100만원을 쾌척했다. 장흥군은 최근 용두마을회관에서 유동중 어르신의 마을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기탁식은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 어르신의 남다른 마을 사랑과 나눔 실천에 큰 박수를 보냈다. 주민들은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기탁된 성금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동중 어르신은 “나는 용두마을을 사랑한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기부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유 어르신은 매년 마을을 위해 100만원씩 기부해 오셨고, 수십 년간 명절마다 무안분도 별초를 도맡았다”며 “게이트볼장 주변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오신 지역의 참 어른이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유동중 어르신은 “나는 용두마을을 사랑한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기부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유 어르신은 매년 마을을 위해 100만원씩 기부해 오셨고, 수십 년간 명절마다 무안분도 별초를 도맡았다”며 “게이트볼장 주변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오신 지역의 참 어른이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용두마을회관에서 유동중 어르신(가운데)의 마을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 광주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농촌정착 지원

### 신규 농업인 교육생 모집

광주농업기술센터가 신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신규 농업인 교육(농촌정착반)에 참여할 교육생 40명을 9월부터 모집한다.

신규 농업인 교육(농촌정착반)은 광주시에 예비농업인과 신규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이달 말부터 약 4개월간 총 20회에 걸쳐 81시간 운영한다. 교육은 작물재배 기초의 이해, 종묘 번식, 잡초, 토양, 재배작물 선택을 위한 작목탐구 교육 등 기초 농사이론 교육·



실습으로 구성해 전반적인 농사 과정을 배우고 실질적인 농사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0일까지이며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gwangju.go.kr/agri/) 공고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농기원, 지역특화 품목 컨설팅 인력 양성

###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심화교육

전남농업기술원이 지역특화 품목 중심의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공무원의 현장 기술지원 역량을 높이고 품목별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지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품목 컨설팅 심화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과 기술 과제를 직접 선정해 자율탐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12주 동안



진행된다. 연수생들은 멘토와 함께 품목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심화 학습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 월별 추진 상황 점검과 중간보고, 결과 평가 등을 통해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일기정량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요가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은세 (음력 1월 21일)

48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  
60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한다  
72년생 말은 바 책망과 의무를 다 해라  
84년생 가장 경제가 다소 회복 될 것이다  
96년생 가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51년생 매우 불리하니 빨리 방향을 전환하라  
63년생 조성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75년생 함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87년생 전체적인 정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99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54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잘 살펴라  
66년생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라  
78년생 서두르면 손해만 보고 말게 된다  
90년생 이상에겐 언행을 조심하라  
57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다  
69년생 나의 고동은 내가 지초한다  
81년생 부부 불화의 징조가 보이니 참아라  
93년생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라

49년생 괴로움이 보이나 걱정할 일은 아니다  
61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73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기억을 못 할 뿐이다  
85년생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  
97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  
52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64년생 손해가 큰 것 같으나 실속은 있다  
76년생 절실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8년생 몸이 상할 우려있으니 다투지 마라  
55년생 자금 회전이 쉽지 않다  
67년생 꽃보다는 열매 실속을 취하라  
79년생 미리 행거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91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58년생 애써사람에게 공격당할 수 있으니 주의  
70년생 새로운 일을 하면 실속을 볼 것이다  
82년생 오락에 빠져 시간과 돈을 허비 하기 쉽다  
94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현재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  
62년생 귀하를 좋아하는 무리가 많다  
74년생 노파심은 버려야 하는 것이 좋다  
86년생 실리 위주로 판단해야 할 때  
98년생 매사에 때가 있으니 성급한 결정 말라  
53년생 여자를 조심하라  
65년생 오랜 끝에 보람을 찾게 된다  
77년생 한정없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세  
89년생 이성은 총지만 같으니 생길 수 있다  
56년생 지금 근심은 약간 해결되겠다  
68년생 배우자가 좋은 일로 돈을 벌겠다  
80년생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92년생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들어오게 된다  
59년생 일이 많지으나 마음은 편안하다  
71년생 큰 계획으로 인해야 값진 수확을 한다  
83년생 화가 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라  
95년생 시리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한다